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30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KBS 광주 열린마당	00 KBS 8 아침 뉴스타임	8 30 다큐멘터리 놀라운 지구	30 아침 연속극 <녹색마차>
30 KBS 뉴스	00 아침드라마 <장화홍련> 30 여유만만	9 30 기본 좋은 날	05 좋은아침 플러스원 3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 세상 55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40 지구촌 뉴스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55 바른말 고운말	00 대하드라마 <천추태후>(재)	11 00 TV 속의 TV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00 KBS 뉴스 12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일일시트콤 <태고 해고 지원이>(재)	00 뉴스와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결집선 <해신>(재)	30 무한지대 스페셜(재)	1 40 MBC 스포츠 2009 MBC투어 S-에 챔피언십 인비테이션	00 마담의 식탁
00 KBS 뉴스 10 KBS 스포츠 2009 KBS배 육상대회	10 KBS 네트웍-전주	2 00 SBS 뉴스 10 사투리쇼 일목일재	00 SBS 뉴스 00 세네트
00 KBS 오늘의 경제 10 누가누가 잘하나	00 2TV 스페셜 <미녀들의 수다>(재)	3 10 40 MBC 스포츠 2009 MBC투어 S-에 챔피언십 인비테이션	00 SBS 애니갤러리 30 들은 생명이야
00 KBS 뉴스 5 15 동물의 세계 40 납도지오그래피	10 꼬꼬미 꿈동산(재) 40 코비 킨(재)	4 00 MBC 뉴스 20 예술 산책 중인 35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통신장 활력프로젝트 시장이 좋다!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40 뮤직뱅크	5 30 MBC 뉴스 50 닥터스	00 남도발전길 55 시사인터뷰 후
00 KBS 뉴스네트웍 30 시사터치 오늘		6 45 일일시트콤 <태고 해고 지원이>	15 일일 드라마 <두 아내>
00 휴먼TV 시노리엔 25 일일연속극 <집으로 가는 길>	00 KBS 8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타임-광주전남 30 30분 다큐	7 15 일일연속극 <밥 쥐>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뉴스 50 대결! 스타셰프
00 KBS 뉴스	00 스포츠 2.0 55 TV 특종대	8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왕중군의 아름다운 초대 <태평연전 손일선 회장>	55 절친노트 2
00 추적 60분		9 55 MBC 스페셜	
00 KBS 뉴스라인 30 미디어 비평	05 코미디쇼 희희낙락	10 50 W	00 스타부부쇼 자기야
00 한밤의 문화 산책 35 KBS 뉴스 45 스포츠 스포츠 55 영화극장 <개이사의 추억>	15 유희열의 스케치북	11 40 MBC 뉴스 24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현장리포트 사람세상 55 로스트 워드 01:35 다크 라인 01:50 월드컵뉴스 세계의 도시문화탐방(재)

“한국의 맛 세계화에 앞장설 것”

SBS '대결! 스타셰프' MC 에드워드 권

“최근 한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제 지식과 해외 생활을 통해 느꼈던 점들이 방송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바이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주방장 출신인 에드워드 권(38·사진)이 19일 오후 8시50분 첫 방송되는 SBS TV '대결! 스타셰프'의 MC를 맡아 한식의 세계화에 나선다.

18일 오후 탄현 SBS 제작센터에서 진행된 '대결! 스타셰프'의 제작발표회장은 프라이팬 위에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찼다.

국내에서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두바이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에드워드 권은 “해외 생활 11년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면서 “5명의 ‘스타셰프’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선사할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또 “새로운 음식을 통해 머지않아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음식을 통해 우리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프

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도 주고 음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전방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권이 어떤 음식을 만들지 관심이 많을 텐데 7성급 호텔 주방장이라고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삶의 영역에서 직접 접하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요 요리를 합니다.”

지난 1월 실 특집으로 선보였던 '대결! 스타셰프'는 특집이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기까지 4개월여 걸렸다.



/연합뉴스

‘대장금’ 생산효과 1천억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연구원 논문

드라마 '대장금'이 직접적으로 창출한 생산 유발효과만 최소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문화산업학회 춘계 학술논문발표대회'에 앞서 18일 사전 배포된 '드라마 대장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고 연구원은 이 논문에서 2003년 처음 방송을 탄 대장금과 관련된 MBC의 방송 광고 수익, 프로그램 수출, 라이선싱, 출판 등 수익이 올해 상반기까지 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드라마 제작비는 약 70억원이지만 드라마 광고 수익만 249억원에 달하고 그동안 60여개국에 1천100만달러어치 수출했으며 테마파크 입장료(28억원), 출판물(12억원) 등 다양한 수익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BS		
06:00 열부! 한국어소	10:00 60분-부모	14:55 오라차 리차차(재)
06:30 스타 인클루시 <티볼리판>	11:00 최고의 요리비결 <장선홍의 대가에게 배우는 맛있는 상차림>	15:05 방귀대장 뽕뽕이(재)
07:10 헬로 부부	11:30 명의 <아내의 숨은 병, 만성골반통>	15:20 알뜰살뜰 콩콩이
07:25 리틀 아인슈타인	12:20 EBS 스페이스 공감 <이탈리아와 함께 떠나는 세계일주>	15:35 블리윙의 숲속 친구들
07:50 척척푹푹 차가된	13:10 희망풍경	15:45 몽실몽실 동물마을
08:00 당동당 유지원	13:40 문학사랑	15:55 당동당 유지원(재)
08:20 안녕! 루퍼트	13:45 똑똑! 영어놀이터	16:15 뽕뽕뽕 보로로(재)
08:30 뽕뽕에 친구	14:05 방잡고 나라, 코코콩	16:30 보로로와 노래해오(재)
08:40 다류동화 달팽이	14:20 작은 녀석들	16:35 척척푹푹 차가된(재)
09:00 로켓보이	14:30 수퍼와이	16:45 빨강야리 연
09:15 방귀대장 뽕뽕이		17:10 수퍼와이
09:30 보로로와 노래해오		17:35 로켓보이
09:35 오라차 리차차		17:50 <생방송> 특! 특! 보너스
09:45 방잡고 나라, 코코콩		18:50 작은 녀석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7:00 EBS 기본과 특별한 <영문법 즐겨찾기>	09:20 EBS 중학1학년 퍼펙트 체크업 (사회)
07:50 " <국사>	10:00 방귀대장 뽕뽕이
08:40 " <도덕>	10:15 당동당 유지원
09:30 EBS 학습자료실	10:35 알뜰살뜰 콩콩이
09:35 TV로 보는 박물관	10:50 달랏라 도랏라
09:40 2010 대학입시 가이드	11:00 일일드라마 <강순이>
10:30 공부의 달인	11:30 만들어 볼까요
11:10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11:40 상상공상 미술방
12:00 EBS 내신6급 (국사)	12:00 EBS TV 중학2학년 (국사)
12:50 " (사회)	12:40 " (사회)
13:40 EBS 기본과 특별한(재)	13:20 EBS 중학2학년 퍼펙트 체크업 (사회·국사)
14:30 " (도덕)	14:00 중학영어특례 level 3
15:20 EBS 포스(재)	15:30 공인중개사시험대비강좌(재)

‘맹공’ 퍼붓는 강행옥 5단

2회전 3보 (34~55)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강행옥 5단 (변호사회)

박광주 5단이 전보에서 우변을 보강하지 않고 좌상귀를 굳힌 것은 옥심을 부린 수로 ▲로 한칸뛰어 지켰으면 무난했다. 거꾸로 ▲를 당한 것이 위아래의 흑 세력과 호응하여 매우 아픈 점이다.

흑 35로 한발 물러서서 지킨 수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로 침착한 수였다. 이 수로 인해 하변이 부풀 조짐을 보이자 박광주 5단은 백 36으로 응수를 물어보고 나서 38, 40으로 특공대를 투입한다. 그러나 이렇게 쳐들어 갈 계획이라면 백 36은 약수교환으로 보류해야 했다. 이 수로 인해 수습이 어려워진다.

강행옥 5단은 흑 39부터 맹공을 퍼부어 대며 우변의 백과 연계해 양군미를 요리할 작정인데 흑 53까지는 호조의 공격이다. 그러나 다음 흑 55로 직접 끊어간 수가 백의 반격을 부른 수로 성급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들여다 보고 3으로 끊었으면 백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위기에 몰린 백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329>	오하오우 니혼고 <1329>	니하오 쥬구워 <406>	한자 이야기 <1046>
<p>Do you think that will happen?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p> <p>A: If I can finish my book by next March, it will be published in December. B: Do you think that will happen? A: I hope so. B: If you could finish it by January, they might publish it sooner.</p> <p>A: 만약 내가 내년 3월까지 내 책을 모두 마무리한다면, 12월에 출판될거야. B: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A: 그렇게 되길 바래. B: 만약 자네가 1월까지 마무리한다면, 좀 빨리 출판될 수도 있을거야.</p> <p>* by ~ ~까지 * publish : 출판하다</p>	<p>だいたい休みの日には何をしますか. 대개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합니까.</p> <p>A: だいたい休みの日には何をしますか. B: 友達と映画を見に行ったり、図書館へ行って本を讀んだりします。金さんは、いかがですか。 A: 私は 部屋の掃除をしたり、洗濯をしたりします。</p> <p>A: 대개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합니까. B: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합니다. 김씨는, 어떻습니까. A: 저는 방청소를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합니다.</p> <p>だいたい: 대개 いかがですか: どうですか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어떻습니까”라는 뜻임 掃除をする-そうじをする: 청소하다 洗濯をする-せんたくをする: 세탁하다</p>	<p>補習 연수</p> <p>A: 我下月来参加技术培训。 wǒ xià yuè yào cānjiā jìshù péixùn 내 하월 가 참여 기술 훈련 내 하월 가 참여 기술 훈련 B: 在哪儿? zài nǎr? (어디? 어디?) A: 在中国。 zài zhōngguó (중국에서) B: 什么? 你参加海外培训? shénme? nǐ cānjiā hǎiwài péixùn? (무엇이? 너 참여 해외 훈련?) A: 对 다음 달에 가올 연수 받아. B: 어. 언제? A: 중요. B: 왜? 어떤 해외 연수 받게? A: 技术培训 (jìshù péixùn) 기술연수 海外培训 (hǎiwài péixùn) 해외연수</p>	<p>借廳借閣(차청차구) 빌릴 차, 마루 청, 빌릴 차, 안방 구</p> <p>차청차구(借廳借閣)는 ‘대청 빌렸다가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속담을 한자로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비나 피할 수 있는 마루를 빌려달라고 하여 의지하더니, 결국에는 주인을 몰아내고 안방까지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남에게 의지하다가 점차 도와 주던 사람의 권리까지 침범함을 비유한다. 안방(閣)을 방(室)으로 바꾼 ‘차청입실(借廳入室)’이라는 말도 있다.</p> <p>이 말은 이조 효종때 흥안종이 지은 속담집인 ‘순오지(旬五誌)’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문화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슬우화’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과 낙타’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이다. 추운 사막에서 아라비아 사람이 천막 안에 있는데 낙타가 처음에는 머리만 조금 들이밀면서 천막 안에 넣어달라고 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앞발을 들이밀다가 나중에는 뒷발까지 들이밀어 마침내 온 몸통이 다 천막 안에 들어 놓고 주인을 밖으로 쫓아 냈다는 이야기이다.</p> <p>두개 있는 것 중 하나를 주면 나머지 하나마저도 차지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한다. 분수(分數)를 지키는 미덕이 요구되는 즈음이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